

국립의대 설립, 전남도 중심 한목소리 내야

김영록 지사, 목포·순천 의견 수렴
서부권 “전남도가 정책 판단을”
동부권 “순천대에서 자체 신청”
30년만의 기회 과도한 경쟁 자제를



봄비 속에 핀 철쭉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15일, 광주 북구 동신여고 교정에 빗물을 머금은 철쭉이 빛을 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의 목포대-순천대 간 경쟁을 통한 단일 의대 설립 방침과 관련, 이번 추가 국립 의대 현안 항배를 좌우할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목포대 총장과 목포시장-의회 의장, 16일 도의회 의장단 정례회동, 18일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의회 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모 방침에 반발하며 전남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목포지역과 인구·산업 등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순천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모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대상지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김 지사와 전남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여년 만에 마련된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각 지역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전남도의 중재 아래 하나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 목포시의회와 만나 최근 통합 의대 설립 방침 대신,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설립으로 정책이 변경된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 상황이 유동성이 있어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목포지역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제시해 줬는데,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이런 지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 의대 설립’ 추진 방침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속 조치를 밝힌 상황에서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역민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6학년도 전남 국립 의대의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계획에 배정 인원이 담겨야 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을 거친 통합 의대 설립 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 지사는 오는 18일에도 순천대 총장, 순천시, 순천시의회와 같은 형태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정책 변경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16일부터 열리는 제 37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석, 도의원들을 상대로 한 현안의 중대성과 지역 국립의대 설립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배경 설명과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급작스런 정책 변경의 문제점과 일방적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목포대를 비롯한 서부권에서는 이미 관련 용역 결과에 의대 부지도 확보된 만큼 공모 방식이 아니라 전남도가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부권에서는 공모와 상관없이 순천대가 정부에 자체적으로 의대 유치 신청서를 내겠다는 입장이 드러나오면서 전남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중재하기는 커녕,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설립 방침이 발표된 뒤 지역 간 반발·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총선 기간 국립의대 설립 공약을 제시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본격적인 유치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간 분열·대립을 막기 위해 김 지사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앞서 국립 의대 유치를 주도하기 위한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통합 의대 설립에 필요한 법 제정의 어려움, 의료 취약지 의대 설립의 적박함을 감안하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들도 “지금도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할 기회”라며 “평도, 매도 놓칠 수 있지 않느냐”며 전남도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의견을 모은 뒤 공모 방식으로 전남 국립 의대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전남도 추진 방향에 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도민 담화문을 내고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교

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 공간·실습 자재, 교수 인력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오는 5월 학교별 의대 모집 인원 등을 조정할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인원을 전남 신설 의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전남의 단일 의대 설립 방침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다음달 대학별 정원을 담은 대입전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통령실, 의료계 대화 강조... ‘국회 특위’엔 거리 두기

대통령실은 15일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 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엔 일단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고 우선 추진 중”이라며 “정

부는 협의회 구성 방식, 참여 의향 등과 관련한 각 단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여러 의견을 추려 종합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제안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가 의료개혁을 힘있게 끌고 왔고 협의회 구성도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통령실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와는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환율 1384원 ‘비상’

중동 긴장... 17개월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돼 15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3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153엔대 후반으로 급등하며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9.72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897.63원)보다 2.09원 올랐다. /연말뉴스

- 세월호 10주기 광주·전남 추모 열기 ▶6면
- 팔도 건축기행 - 대구 사유원 ▶18면
- 타이거즈 전망대 - SSG·NC와 첫 격돌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주최·주관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강상북도교육청

후원

여수시